

고린도전서

인사와 감사

-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
-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
-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
- 4 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
- 5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
-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
-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
-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
-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

고린도 교회의 분쟁

- 10 ●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
-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
-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, 나는 아볼로에게, 나는 제바에게,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
-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
- 14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
-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

1장 요약정리

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접한 후 책망과 권면을 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. 본장에서는 첫째 바울이 문안인사를 한 후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, 둘째 교회의 분열을 지적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.

1:1 소스데네

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했던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(행 18:17)으로 이 사건 후 독실한 성도가 된 듯하다.

1:2 고린도 그리스의 항구도시로 상업과 무역의 도시이자 동서

문화와 종교가 혼합을 이루었다. 또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다.

1:9 미쁘시도다

미쁘시도다(헬, 피스토스)는 '신실한, 믿음만한'이란 뜻으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사실을 말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다.